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320호 【루계 제25098호】 주체104(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사 설

우리 어머니들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애국자들이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어머니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파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영웅신화를 창조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미더운 우리 청년들,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머리숙여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있다. 이것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자식들을 키워 당과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워주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며 영웅적인 삶과 투쟁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헌신하고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다.

당과 조국, 인민의 축복속에 뜻깊은 날을 맞는 온 나라 전체 어머니들은 지금 자신들의 운명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큰절을 올리고있으며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머니들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어머니들의 역할을 떠나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장구하고도 간고하였던 우리 혁명의 준엄한 력사에는 강인한 의지로 온갖 풍파를 헤쳐오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온 조선의 어머니들의 애국충정의 성스러운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녀성들을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자주적존엄과 참다운 삶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적멸시와 정치적무권리, 사회적불평등과 봉건적구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의 운명과 지위, 사상정신적풍모와 역할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녀성존중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온 나라 어머니들의 정치적생명으로부터 생활상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값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어버이품속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고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들과 후대들의 문제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어머니날을 뜻깊게 경축하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최상급의 창조물들을 제일먼저 일떠세워주시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여주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총잡은 남편들과 군인들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과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제일먼저 헤아려주시며 그들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은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적헌신성으로 김정은시대를 빛내여가고있다. 언제나 당의 위업을 만가지 고생도 락으로 여기며 자기를 바쳐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한가정의 자그마한 울타리에 국한된 모성애가 아니라 부강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는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애국심의 분출이다. 우리 어머니들속에는 애지중지 키운 8남매, 6남매모두를 총대병사로 내세운 어머니들도 있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친자식처럼 키우는 어머니들도 수없이 많다. 자식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라는 소원은 그들모두를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 내세우는것이다. 이런 어머니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오늘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를 이루고 조국보위초소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백두산대국을 높이 받들어올리고있다.

아들딸들을 많이 낳고 선군혁명의 기둥감으로 키우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더없는 애국사업으로 여기는것은 선군시대 어머니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이다. 자식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나라의 인재들로 억세게 키워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어 민족의 대, 주체혁명의 대는 굳건하며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어머니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는 모성이기 전에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렬한 녀성혁명가, 애국자들이다. 우리의 부강조국건설력사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을 수놓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어머니들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공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영웅적인 투쟁전통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길에 들어선 오늘에도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우리 어머니들속에는 수십년간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자식들도 모두 도로관리원으로 내세운 구봉령의 어머니도 있고 한생을 바쳐 나라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한 녀성과학자도 있으며 인적드문 산중에서 남편과 함께 누가 알아주건 말건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보석과 같은 마음을 지닌 애국자도 있다.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전구마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의 면모가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온 나라 어머니들과 녀성들, 전체 인민의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선군조선의 비약과 번영의 기상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꾸려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이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가는것을 더없는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미덕의 소유자들이 우리 어머니들이다. 이런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도 달게 여기고 남모르는 마음속아픔도 이겨내며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지키고 빛내여온것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희생된 딸을 대신하여 총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추모위원회가 6일 로씨야 까렐리야에서 결성되였다.

추모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또르 에고로브와 부위원장 웨. 에쓰. 뽀스노브가 선출되였다.

추모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회고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령도자회고 슬로벤스꼬위원회가 9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협회 위원장 이완 드락슬레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의 웃음과 행복과 후대들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절세의 위인이시다. 사랑의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락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과 뜻, 정으로 따르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

모든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자기 령도자를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확고한 신념,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절절히 그리며 보답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백옥같은 충정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와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바쳐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삶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당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조국땅 곳곳에서 조선녀성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 선군의 길에 가정의 행복도, 후대들의 미래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군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깐지고 주인다운 일본새는 우리 어머니들의 고상한 풍모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고향땅을 선경거리, 선경마을로, 행복의 웃음꽃이 나날이 꽃펴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훌륭히 꾸려나가야 한다. 집단과 동지들을 사랑하고 레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여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것은 어머니들의 본분이고 의무이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첫걸음에서 공백이 생기면 백년세월로도 메꿀수 없고 천만금으로도 보상할수 없다. 모든 어머니들은 가정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곧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성장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부모, 고향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을 존중하고 내세워주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일군이건 영웅이건 체육명수이건 그 누구나 자기들의 영예와 기쁨속에 깃들어있는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헌신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어머니들과 녀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머니들의 일손을 적극 돕고 생일날이나 명절날에는 꽃다발도 안겨주며 뜨겁게 축하해주어야 한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어머니들이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녀맹조직들에서는 어머니들이 언제나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해나가도록 사상교양과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키우는것을 적극 장려하며 자녀교양에서 모범적인 녀성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어머니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오늘의 총진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이악하고 열정적인 조선녀성의 풍모가 힘있게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온 나라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온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서 녀성혁명가,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가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전체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은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수리아아랍인민의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해나가고있는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4(2015)년 11월 15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에서 기념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에서 당기관지 《인베르따》창간 24돐 기념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7일 알루이씨우 베빌라꾸아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 총비서가 김철학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기념상장에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신문 〈인베르따〉창간 24돐에 즈음하여 2015년 11월 7일》이라고 씌여져있다.

알루이씨우 베빌라꾸아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우리 당뿐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브라질의 진보정당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과 당기관지 《인베르따》의 명의로 기념상장을 드리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령도자회고 체스꼬위원회가 4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며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인 야로슬라브 까프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등 여러가지 정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드높이 광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룡양광산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건설 함경북도에서

항구도시 청진시에 함경북도 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받들고 힘찬 전투를 벌려 열달도 안되는 기간에 연건평이 1만 3천여㎡에 달하는 육아원, 애육원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새로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에는 교양실과 운동실, 지능놀이실, 치료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공원 등이 훌륭하게 꾸려져있으며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갖가지 유희시설들과 오락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교양실과 모든 생활장소들이 원아들의 지능계발과 도덕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여있다.

또한 운동실과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은 원아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 도들에서도 육아원, 애육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전투력있는 단위들을 건설에 동원시켰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건설지휘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사량이 방대하고 건설기일이 짧은 조건에 맞게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을 립체적으로 내밀게 하였다. 그리고 건설주, 시공주가 되여 건설진행정형을 자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도지방건설건재판리국, 라남구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1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을 끝내고 수천㎥의 기초콩크리트타입을 한달동안에 해제끼였다. 건설자들은 시공이 복잡한 원형건물과 건설대상들의 골조공사를 100여일동안, 내외부미장을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청진화학섬유공장과 청진항만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구내포장과 보도블로크깔기를 멋들어지게 해놓았다. 청진항과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울타리를 잘 만들어세웠으며 포항구역과 청암, 수남, 신암, 송평구역의 일군들과 가두인민반원들이 1만여㎡의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원림조성을 하였다.

특히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두개 호동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한개 호동을 더 맡아 해제끼였으며 라남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맡겨진 공사과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건설지휘부 일군들은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모든 방과 놀이장, 공원 등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리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와 청진강재공장, 교무산세멘트공장, 도무역관리국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물자,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청진시와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인민반들에서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항구도시 청진시에 육아원, 애육원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특파기자 리은남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든것을 다 바칩니다.》 김 정 일

위대한 그 품속에 백두산식솔이 산다

어머니날이 왔다.

아름다운 꽃들과 기념품들을 들고 어머니들에게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거리와 마을을 명절분위기에 휩싸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어머니날,

뜻깊은 이날 누구나 어머니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한다.

생을 준 어머니, 어릴 때에도, 다 자라서도 언제나 안기고싶은 따뜻한 그 품, 자식을 제일로 아끼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 인생의 첫 스승이자 영원한 스승인 어머니…

어머니날, 아들딸들의 뜨거운 정과 존경이 담긴 꽃다발을 받는 이날에 우리의 어머니들 역시 생각깊다.

이 세상 그 어디에나 어머니들은 있고 모성애가 없는 어머니들이란 없다.

하지만 모성애를 지녔다고 하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조국과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게 키울수 있었던가. 또한 이 세상의 어머니들모두가 자신이 력사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왔다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게 생을 꽃피워왔던가.

꽃다발을 안겨주는 자식들이 고맙고 사회와 조국이 주는 축하와 축복이 뜨거울수록 이 땅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준 위대한 어머니,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품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돌이켜보면 망국노의 설움속에 태줄을 끊은 자식을 품어안고서도 아기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고 커가는 아들딸들에게 시래기범벅마저 배불리 줄수 없었던 녀인들, 자식들의 운명과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픔으로 그리도 눈물많았던 녀인들이 바로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였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 녀성들이 과연 언제부터 운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때부터였다.

잊을수 없는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와 더불어 이 나라의 녀성들은 수백년을 거쳐 자신들을 짓누르던 천대와 몽매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당세포총회에서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일제놈들이 다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2～3년동안에 다 복구해가지고 잘살지 않았는가고,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수령님께 큰 힘을 드린 신포향,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쩌고어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신념의 말씀을 올린 태성할머니 …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형성되고 굳세여진 조선의 어머니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였다.

지금으로부터 54년전 11월 16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였던 그날 순박하면서도 강직한 우리 어머니들을 한사람한사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존안은 얼마나 자애에 넘치시였던가.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고 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한 가정의 운명에 앞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주저없이 전선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들,

전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복구건설에 나섰고 부모잃은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혈육의 정으로 훌륭하게 키운 인정많은 어머니들,

자녀교양과 사회주의건설에 몸바치고있는 여러 어머니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음성이 울려퍼질 때 장내는 얼마나 격정으로 설레였던가.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이라고, 어릴 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것은 일생동안 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훌륭한 교양자가 되라신 간곡한 당부의 교시,

그날의 뜻깊은 연설을 자자구구 새기며 온 나라의 어머니들은 새로운 포부와 열정으로 아들딸들을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역군들로 키우는 길에 나섰다.

11월 16일, 진정 이날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온 나라 어머니들을 력사와 인민앞에 떳떳이 내세워준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행복을 창조하는 억센 걸음걸음을 내짚었고 성장의 자욱자욱을 찍으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온 나라 어머니들과 녀성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그들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추억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리수복영웅의 고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의 집과 잇닿은 길어구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영웅의 자취를 더듬어보시는듯 그윽한 시선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길은 참으로 뜻깊은 길이라고, 리수복영웅은 이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을것이고 이길을 걸어서 전선으로 나갔을것이라고 나직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의 어머니는 이길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것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길을 걷는다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에 들어서시였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대신 우리가 어머니의 곁에 있다고,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것은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 조국앞에 내세운 온 나라 어머니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이였고 존경이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서 억세여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 사람들이여, 우리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잠시 돌이켜보자.

한 나라, 한 민족을 멸살시키고도 남을 횡포한 력사의 모진 광풍이 온 나라의 집집마다에도 그 얼마나 모질게 불어쳤던가.

조국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이길에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있음을 누구보다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은 우리 어머니들, 이 나라의 녀인들이였기에 그들은 력사의 도전을 맞받아 결연히 나섰다.

연약한 두어깨에 너무도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머지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길 아닌 길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피와 땀을 뿌렸다.

자신은 허리띠를 더 조여매면서도 남편들과 아이들을 일터와 학교로 떠밀어준 우리의 어머니들, 한두해도 아닌 고난의 수년세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합친다면 아마도 대하를 이루리라.

한가정만을 위한 진정이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의 부름앞에 떳떳이 내세우려는 마음, 조국을 위하고 시대와 인민이 바라는 곳에 아들딸들이 있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철의 진리를 터득한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이였기에 모진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었고 오늘도 그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것이리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남모르는 구슬땀을 바쳐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을 깊이 헤아려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고난의 시기와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제2차,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어머니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어머니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처녀시절 자기가 섰던 초소에 자식을 세운 평범한 어머니의 소행을 대견하게 여기시여 그 가정을 혁명적군인가정으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분도,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낸 한 녀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어린 자식에게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절세위인의 다심한 손길이 있어 이 땅에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어머니의 대부대가 무성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우리 어머니들은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예술인, 체육인으로 그리고 중요초소에서 혁명가로, 애국자로, 공로자로 보람찬 삶을 꽃피울수 있었다.

어머니, 한생을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이 가정과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과 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 땅의 수천만 어머니들의 삶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드시여 끝없는 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속에 더욱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진행되였던 뜻깊은 날인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이날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도록 은정어린 조치들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넘친 음성은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어머니날, 이날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는 행복의 웃음이 더 활짝 꽃피고 우리 조국은 더더욱 젊음으로 약동하며 최후승리에로 향한 천만군민의 발걸음에는 더 큰 나래가 돋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미덕의 선구자들로, 선군시대의 공로자들로 자라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단 한치도 물러설 권리가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로력영웅 박사 최승복동무, 온 나라가 다 아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 8년세월 자신의 모든 지성을 다 바쳐 한 로동자처녀의 잃었던 얼굴을 다시 찾아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사 림현단동무…

태양의 빛을 떠나 만물의 소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녀성들의 값높은 삶도 위대한 어머니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말할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삶을 빛내여가는 우리 어머니들, 녀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녀성들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우며 자기의 모범으로 자식들의 끊임없는 성장에 기여하고 나라일에 보탬주려는것이 어머니날에 더욱 뜨겁게 간직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태양의 품, 그 품이 있어 강성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며 우리모두는 영원한 백두산식솔로 값높은 삶을 창조해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채 히 성

간절한 그리움으로 부르신 노래

누구에게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 어머니날을 맞을 때면 더욱 소중히 안겨오는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뜻깊은 이날 우리 인민이 마음속으로 먼저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이다.

구절구절 새길수록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서 포연스민 군복자락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감싸안으시고 조선의 고운 꿈을 꽃피워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경건히 안겨온다.

세월의 언덕넘어 뜨겁게 울려퍼지는 이 노래와 함께 우리 인민은 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노래 《나의 어머니》를 부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삼가 우러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수령님을 잘 받들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해야 한다고 자주 간곡하게 당부하시였습니다.》

주체49(1960)년 7월 15일이였다.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급중학교과정을 마치고 정다운 교정을 나서시는 뜻깊은 졸업식날이였다.

그날 밤 졸업야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졸업생들의 한결같은 소원에 의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시였다.

(무슨 노래를 부르실가?)

경모어린 졸업생들의 눈길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렀다.

동무들의 미더운 모습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시였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

그 노래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노래였다.

한 학생의 눈앞에는 문득 한해전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주체49(1960)년 새해를 앞둔 어느날이였다.

학교에서는 학급별예술공연이며 설맞이놀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모임들이 준비되고있었다.

어느날 학생들이 밤이 깊어 공연련습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서두르고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피아노소리가 울렸다. 분명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입속말로 부르군 하시던 노래선률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학생은 피아노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주인듯 몇소절을 치시더니 조용히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시는것이였다.

…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

노래가사를 새겨듣는 학생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거리였다.

그때에야 학생은 비로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노래가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노래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학생이 그 노래를 부르고싶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직도 노래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시였다.

그 학생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햇솜같은 흰눈송이들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바닥을 펴시고 눈송이들을 받아보시더니 끝간데없이 아득한 하늘에서 펑펑 쏟아져내리는 흰눈송이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시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과 나란히 걸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백두산에서 이 눈을 맞으시며 나를 안아키우시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셨다. 해방후 어느해 눈내리던 겨울날 밤에 어머님은 나에게 꿰진 바지를 곱게 기워 입혀주시면서 이제 대학에 갈 때면 좋은 바지를 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서 빨리 커서 유치원을 마치고 소학교, 중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여 마음껏 배워서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시절에 나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에 안아키워주시던 어머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였는가를 미처 몰랐지만 크면서야 그것을 알게 되였다. 여느때도 그러하지만 더우기 오늘처럼 눈내리는 겨울날 밤이면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어머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군 한다. …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실을 돌이켜보는 학생은 높뛰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렀다.

어머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졸업식날에 부르신 노래 《나의 어머니》, 정녕 그 노래속에는 어머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굳은 맹세가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어머니들의 속마음도 헤아리시며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고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다 자라서도 제일먼저 찾는 어머니,

신성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볼 때면 우리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는것이 어머니의 성품입니다.》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던 어느해 9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으니 동행한 일군들속에는 한 인민군장령도 있었다.

그날 어느 한 단위의 사업을 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의 고향을 잊지 않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은 여기서 10리 남짓한 곳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니 이곳에 오면 누구보다 향수의 감정이 짙겠다고 하시면서 고향에서 사는 가족, 친척들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머니가 생존해있다는 대답에 무척 놀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어머니가 고향에서 사는가고, 왜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가고 다우쳐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던 주체46(1957)년 8월의 선거날을 늘 이야기하며 그날의 영광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다고, 수령님의 은덕에 농사를 잘 지어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지 않는데 대하여 일군은 말씀드리였다.

그 이야기에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속깊은 어머니라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을인민들속에 계시는 사진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도 찾아보시였다.

아이를 업고있는 녀성이 어머니라는 일군의 기쁨넘친 대답도 정깊이 들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어머니가 있다니 동무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어머니한테 종종 들려보는가고 물으시였다.

일도 바쁘고 해서… 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는 일군을 바라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며 이렇게 타이르시였다.

일이 바빠도 시간을 내여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주 들려보아야 한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다 커서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도 자식생각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한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어쩌다 시간을 내여 찾아가면 일이 바쁘겠는데 왜 왔느냐, 이 에미 걱정은 말고 일을 잘하거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제나저제나 늘 기다린다. 한생을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것이 어머니들의 심정이다. 한번 가보는것이 좋겠다. …

어머니의 웅심깊은 사랑을 뜨겁게 새겨보게 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일군의 가슴은 몽클 젖어들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려주시는 다심한 그 사랑속에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그밤은 한생토록 간직하고 살아야 할 이야기를 일군의 가슴속에 새겨준 잊지 못할 밤이였다.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위대한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어머니라는 부름이 시대의 하늘가에 더욱 빛나고 어머니들과 자식들간에 맺어지는 두터운 정으로 조국은 보다 큰 걸음을 내짚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리 금 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원군 원화협동농장현지지도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원군 원화협동농장현지지도 60돐 기념보고회가 15일에 진행되였다.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평원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로영일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젖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원화땅에 30여차례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5월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고 원화리를 찾으시여 포전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시면서 농업협동화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였을뿐아니라 주체44(1955)년 11월 15일 갓 조직된 이곳 농업협동조합에 오시여 자신께서도 여기 조합원이라고 하시면서 조합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원화리 농민들이 삼가 올린 분배몫으로 많은 자동차들과 뜨락또르, 련결차를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원화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받들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여차례나 농장을 찾으시고 원화리를 더 잘 꾸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농장포전들을 규격포전으로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농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축산과 과수를 발전시켜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원화리 농민들이 맺은 혈연의 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그대로 이어지고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농장의 명예농장원이 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농장이 지난 60년간 자랑스러운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기술농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수백세대의 농촌문화주택들과 학교 등이 훌륭히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 나날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평범한 농장일군들이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으며 농장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고 2중3대혁명붉은기농장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세벌, 네벌농사면적을 늘이고 품종배치와 농작물비배관리를 짜고들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남새, 버섯, 양어생산을 늘여 농장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할뿐아니라 모든 마을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려 원화리를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의 땅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미래과학자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시대 선경거리인 미래과학자거리에 교육자, 과학자들의 끝없는 행복이 넘쳐나는 가운데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5일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하였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 볼수록 황홀한 거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치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내각부총리들이 멋쟁이거리의 궁궐같은 새 집들에 살림을 편 교육자, 과학자가정들을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와 30층 1호에 입사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리종락, 연구사 김석철가정들과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강좌장 윤희광, 평양건축종합대학 연구사 궁석철, 김책공업종합대학 부학부장 황광산, 교원 박형원, 실장 임종빈가정을 비롯한 여러 가정들에서 집주인들이 책임일군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책임일군들은 교육자, 과학자들을 제일 아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은정속에 최상급으로 꾸려진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주인들을 축하해주었다.

여러칸의 살림방들과 부엌 등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방마다에 차넘치는 따뜻한 어버이사랑에 그들은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세심한 손길아래 생활상편리가 최대로 보장된 궁전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크나큰 감격속에 살고있는 교육자, 과학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넘겨주었다.

집주인들과 한자리에 앉은 책임일군들은 자식들과 가정형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새집들이를 한 소감도 들으면서 오늘의 이 경사를 안아오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해주었다.

집주인들은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으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주인공들에게 궁궐같은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여 집집마다에 만복을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목이메여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들모두는 평범한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은혜로운 삶의 품이며 영원히 안겨살 어머니조국이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세상에는 교육자, 과학자들도 많지만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자기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교육자, 과학자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책임일군들은 교육자, 과학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를 심장에 조아박고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교육자, 과학자들이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 돌격대가 될것을 당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수림화의 지름길—대중의 창조적지혜발동

동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동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백정보의 산에 여러가지 수종의 많은 나무를 심을 목표를 제기하고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주목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조국애를 지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나무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심어 사름률을 높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군일군들이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국심에 관한 문제라는 판점에서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한것은 경험적이라고 할수 있다. 양묘장에서부터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사실이 그 실례이다.

군에서 산림복구전투작전을 펼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것은 사름률보장이였다. 지난 기간의 경험을 보면 가을철에 심은 나무는 사름률이 높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양묘장에서 키워낸 나무모들이 100% 살지 못했다는것은 결국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총탄들중에 불발탄이 있었다는것과 다를바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군책임일군은 군인민위원회 해당 부문 일군들을 만났다.

알고보니 그 원인은 계절적영향 즉 봄철에는 온도가 보장되고 땅이 푸실푸실해져 어린나무의 뿌리발육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지만 가을에는 그렇지 못한데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무가 잠자기에 들어가기때문이다. 특히 일부 나무모는 뜰 때 잔뿌리가 끊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는것이다. 잠자기에 들어가야 할 나무가 그렇게 되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어렵다. 결과 그런 나무는 사름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놓고 군책임일군은 생각이 많았다.

지난 기간 해마다 나무심기가 시작되면 양묘장의 종업원들과 군안의 청소년학생들이 나무모를 보장하였다. 그런데 일부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원인은 나무모보장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잘 지키지 못한데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극복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다음날 군산림경영소 양묘장에 나가 종업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군책임일군은 애국심을 떠나서는 산림복구전투승리의 지름길을 마련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 실천에 옮기자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양묘장의 종업원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나무모는 생산자들이 떠야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뜰수 있다. 특히 가을철에는 나무뿌리를 반드시 닥풀우림액에 담그였다가 나무모밭의 흙을 골고루 뿌려 운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모를 떠야 기술적요구를 지킬수 있다. …

합리적인 방도였다. 그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군책임일군은 나무모는 반드시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보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군에서 또 한가지 중시한것은 군중양묘장들에서 많은 나무모가 생산되는데 맞게 해당 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기술적지도를 앞세우게 한것이다. 올해에는 군안의 전반적인 기관, 기업소들에서 양묘장을 꾸리고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모를 키웠다. 결과 군중양묘장들에서 많은 나무모를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군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작전을 펼치면서 또 한가지 잘한것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가지고 제때에 심도록 한것이다. 두둑을 짓고 넓은잎나무를 심어 뿌리발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 사실을 보자.

나무의 사름률보장문제를 놓고 올해 가을에는 비가 자주 내렸기때문에 사름률이 높을것이라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죽은 나무는 봄철에 다시 심으면 된다는 일군도 있었다. 이것은 나무모를 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총탄과 같다는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현지를 돌아보면서 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군일군들은 등고선방향으로 두둑을 짓고 구뎅이를 판 다음 부식토를 넣고 넓은잎나무를 심으면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을 때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발육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때문이였다. 역시 대중은 선생이였다.

군일군들은 즉시 삼성, 룡연, 보성지구를 비롯한 산림복구전투가 진행될 지역들의 자연지리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 조림구역과 나무심기계획을 주었다. 그리고 두둑짓기를 앞세우면서 나무심기를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험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할 때 산림복구전투 승리의 지름길이 마련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였다

천리마구역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천리마구역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의 동력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종전보다 생산을 6배이상 늘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기때문이다.

청년양묘작업반은 지난 시기 나무모생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온 단위라고 할수 있다. 작업반에서는 지난 기간 나무모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게 야외재배장과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또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 혼합기, 분쇄기 등도 갖추어놓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산림경영소 지배인 최영학동무는 자기 단위 실정에서 이만하면 괜찮은것이라고 은근히 자부도 하고있었다. 하지만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놓고 그는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를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품들여 마련해놓은 이 설비는 가동하는 날보다 멎어있는 날이 더 많았다. 원인은 전기가 부족한데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당에서는 그 어느 단위에서나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부족되는 전기는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여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한 지배인은 일군들앞에서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다. 자기 단위의 실정에서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의 동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태양빛전지판으로 해결한다는것이 너무나 아름찼기때문이였다.

그러는 그들을 보며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는소리를 하며 주저앉으면 책상주의자가 되고 물러서면 패배주의자로밖에 달리 될수 없습니다.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리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열린 길도 막힌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일군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그들은 이 사업을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적은 투자로 큰 실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지배인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여러차례 무릎을 마주하기도 하고 나무모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변류기를 리용하면 축전지가 없이도 성형기를 가동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일군들이 앞장에서 태양빛전지판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뛰고 또 뛰였다. 종업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이 사업에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바쳐나갔다.

짧은 기간에 수십개의 태양빛전지판과 변류기가 확보되였다.

여러차례의 실패가 있었지만 끝내 성공하였다.

동력문제가 해결되여 나무모영양단지생산을 종전보다 훨씬 늘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에 필요한 전기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었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니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였다.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산림복구전투승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문제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안고 나무모영양단지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나무의 사름률과 산림토지리용묘리

순천시 신리산리용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림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순천시 신리산리용반원들이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을 심고있다. 이 사실을 놓고 이곳 산림감독원 윤창선동무는 림농복합경영방법이 은을 네게 하자면 산림토지리용묘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근거가 있는 말이였다.

나무의 사름률을 100% 보장할수 있는 파학적인 담보를 가지고 가을철나무심기를 하고있는 사실을 보자.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나무가 없거나 잘 관목만 있는 산에 나무와 농작물, 약초 등을 심어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자는데 있다. 여기서 기본은 나무의 사름률보장이다.

이곳 산림감독원과 산리용반원들은 최근년간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 과정에 원래의 땅표면보다 심은 나무의 뚤레가 낮아지게 심어야 사름률이 높다는 과학적인 담보를 마련하였다.

나무모는 뜰 때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심으면서 사름률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하는것이다.

대체로 봄철과 가을철에는 가물이 심하며 바람도 자주 분다. 결과 땅이 마르기때문에 나무의 사름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나무뚤레가 원래의 땅표면보다 낮아지게 심으면 가뭄피해를 막을수 있다. 바람에 의한 물기날기현상이 줄어들기때문이다. 또한 눈석임물이 흘러들어 수분이 보장될뿐아니라 나무잎들도 덮이여 물기증발이 적어진다. 결과 나무가 잠에서 깨여나는 봄철에 물기가 알맞춤하게 보장되여 사름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묘리를 알게 된 산리용반원들은 가을철 나무심기를 하면서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가을철나무심기를 하면서 이들이 중시한 다른 한가지는 적지적수,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은것이다.

지난 기간 바늘잎나무를 심은 경험을 보자. 산리용반원들은 바늘잎나무를 해비침률이 그리 높지 못한 산에 심었다. 바늘잎나무들은 대체로 해빛을 많이 요구한다. 그런데 나무가 어릴 때에는 해가 적게 비치는 곳에서도 잘 자랐다.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곳에 잣나무 등을 심었다.

해비침률이 높거나 습기가 많은 지역들에는 대체로 넓은잎나무들을 심었다. 이때 산의 경사도와 자연지리적특성에 따라 등고선방향으로 너비가 1m이상 되게 풀두둑을 짓고 나무를 심었다. 두둑과 두둑사이간격은 경사도에 따라 다르게 하였으며 나무와 나무사이간격은 평균 0.7~1m로 보장하였다.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이런 방법으로 가을철나무심기를 하면 여러가지 농작물심기에도 유리하였다. 봄철에 나무를 심고 뒤따라 거름을 내면서 농작물을 심자면 일손이 딸린다. 하지만 나무를 가을철에 심으면 이듬해 봄에 모든 일을 안전하게 할수 있었다. 즉 가을철에 심은 나무 주변 밟아주기와 여러가지 농작물심기를 적기에 할수 있어 좋았다.

산림감독원과 산리용반원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농작물을 심으면서 련작피해를 막은것이다.

이곳 산리용반에서는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해마다 농작물을 바꾸어가면서 심었다. 실례로 고구마를 심었던 땅에는 다음해에 락화생 또는 다른 작물을 심었다. 그 이듬해 역시 농작물을 바꾸어심었다.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이런 방법으로 고구마, 락화생, 강냉이 등을 심으니 나무들의 생육이 좋아진것은 물론 농작물수확고가 높아 실리가 있었다.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가을철 나무심기를 적기에 기술적요구대로 해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곳 산림감독원과 산리용반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가을철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품을 들여 키운 아까운 나무모를 죽여버리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산림을 빨리 복구할수 없습니다.》

전국각지에서 가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산림복구전투의 첫해인 올해에 가을철나무심기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모든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잘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름률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나무심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심은 나무가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수종별특성을 잘 알고 질적으로 심어야 한다.

잎이 지는 나무들을 위주로 하여 심어야 한다. 특히 수종에 따라 뿌리내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될수록 뿌리내리는 기간이 오랜 나무들을 선택하여 심어야 한다. 그래야 땅이 얼기 전에 토양속에 뿌리가 내릴수 있다.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붉은단풍나무, 황철나무, 시닥나무, 자작나무, 보리수나무, 들메나무 등을 심는것이 좋다.

봄철나무심기와 마찬가지로 가을철나무심기에서도 시기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무심기는 대체로 대기온도가 5℃아래로 내려가는 시기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해야 한다. 나무심는 시기는 해발고가 500m아래인 낮은 산지대에서는 11월 중순부터, 500~800m정도의 중간산지대에서는 11월초부터 시작하여 땅이 얼기 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나무구뎅이파기를 잘하여야 한다. 나무심을 구뎅이를 팔 때 나오는 겉층의 흙과 속층의 흙을 따로 무져놓아야 한다. 구뎅이는 60×60×50㎝의 크기로 파는것이 좋다. 수종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수도 있다.

구뎅이를 판 다음에는 맨 밑에 겉층흙과 부식토를 먼저 깔고 그우에 나무모를 놓는다. 이때 뿌리를 고루 펴놓고 그우에 흙을 5㎝되게 덮은 다음 뿌리가 제대로 펴지도록 하면서 잘 밟아주어야 한다. 다음은 구뎅이에 흙을 채우고 원래의 땅에서보다 2~3㎝정도 더 올라가게 나무모에 흙을 덮어준다.

나무모를 다 심은 다음에는 밟아주기를 잘해야 땅속물기가 날아나는것을 막아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 가물 때에는 물주기를 하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심기에서는 나무모를 잘 관리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무모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빨리 심어야 한다. 또한 잔뿌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을철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자연흐름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나무모생산을 늘여간다. —신포시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쥔 당일군의 발자욱

성진내화물공장 기술자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데서도 단위의 당책임일군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것은 성진내화물공장 기술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문제이다.

공장기술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자기 공장 초급당비서에 대한 찬사이기 전에 비약하는 시대가 부르는 참된 당일군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첫 발자욱

첫 발자욱이 천리길을 결정한다.

8년전 공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에는 굳어진듯 움직일줄 모르는 한 사람이 서있었다. 공장에 새로 임명되여온 초급당비서 리철웅동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가슴속에서는 불이 일었다.

나아갈 길은 해솟는 바다처럼 밝고 창창한데 어찌하여 공장은 이 지경이 된것인가.

공장이 숨죽은 원인을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 원료때문이라고 일군들은 말하고있다. 물론 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공장이 입고있는 손실은 실로 치명적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수입연료, 원료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장은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는것이 아닌가.

리철웅동무는 이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볼수 없었다. 공장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 매우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본 그는 그 원인을 남만 쳐다보는 수입병, 난관앞에 주저앉아 우는소리나 하는 패배주의에서 찾았다.

원인은 방도를 찾게 한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하는 길만이 공장을 살리고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유일한 길이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연료,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자!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에서 이런 결심을 굳힌 리철웅동무는 과학자, 기술자들속으로 첫걸음을 내짚었다.

공장의 과학기술력량은 대단했다. 학위, 학직소유자들도 있었고 내화물공업의 권위자들도 있었으며 기술자, 기능공대렬도 그쯘했다.

그런데 그 력량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은 일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판점때문이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어깨우에 공장의 운명이 놓여있다는 판점이 서지 않은데로부터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 낯을 돌리지 않았고 지어 기술자들을 다른 일에 로력동원까지 시키고 있었다.

그러니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정열도 매우 저조했다.

이런 상태였으니 리철웅동무가 콕스와 중유대신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는 기술혁신을 하자고 제기했을 때 그들이 선뜻 응해나서지 못한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리철웅동무는 그들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그들속에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창조정신, 서로 돕고 이끄는 협조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하였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하나 열고들어가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속에 맺힌 문제들도 풀어주었으며 사업조건, 생활조건도 보장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드디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잠에서 깨여났다. 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속에 그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영예감을 되찾고 전투진지들을 차지했다.

연료,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공장은 과학기술전장으로 전환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내짚은 당일군의 첫 발자욱이 불씨가 되여 온 공장에 과학기술열풍을 몰아온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성공이 멀리 앞에 있었다.

함께 찍은 발자욱

마음을 합치고 발걸음도 함께 하면 천리도 지척이다.

과학기술사업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초행길인것으로 하여 실패와 곡절을 겪을수 있다. 문제는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과 그 어떤 시련도 꿋꿋이 이겨내는 완강성을 잃지 않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당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연탄으로 콕스와 중유를 대신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본격화되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수십차례의 실패는 일군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실험으로 인한 손실액을 무엇으로 보상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제기되였다. 그것은 기술자들의 심리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손실때문에 법적책임까지 지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혀 손맥을 놓고 나앉는 기술자들도 나타났다.

이때 초급당비서가 주저없이 나섰다.

《이 한몸 바쳐서라도 기어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마음이 흔들리면 열려진 문도 닫혀으로 인신의 결승선을 향해 우리 함께 어깨 겯고 달립시다. 나도 연구집단의 한성원이 되여 책임을 함께 지겠소.》

초급당비서의 절절한 호소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을 쳤다.

리철웅동무는 기술혁신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대오를 이끌어나갔다.

그는 자신이 직접 크링카소성로앞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정해준 로조작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송풍압을 조절하면서 로안의 상태도 부단히 감시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로조작에 원인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으며 이 문제해결에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탄에 회분이 많아 크링카의 질이 높지 못한것을 해결하기 위한 석탄선별기의 도입,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결합제를 개발하여 알탄을 만들어쓰는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에 기술자들과 어깨를 함께 들이댔다.

기술자들의 정치적생명, 기술혁신의 운명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 선 당일군의 고결한 모습은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여 그들의 정신력과 열정을 폭발시켰으며 마침내 무연탄에 의한 마그네샤크링카생산에서 성공하는 일대 기적을 안아왔다.

내화벽돌생산용결합제를 국산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당시 그 성공에 대해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실패가 거듭되자 일군들과 기술자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술로는 어렵도 없다는 불가능설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결합제연구집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리철웅동무는 이런 때일수록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믿음을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공장일군들과 함께 현장시험공정을 잘 꾸려주고 여기에 김팡일동무를 비롯한 인재들을 망라시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를 자신이 도맡아 해결하느라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당일군과 기술자들이 마음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낮과 밤을 불태우는 과정에 또 하나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우리 식의 내화벽돌생산용결합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한것이다.

앞선 발자욱

발자욱은 뒤에 남는다. 그러나 기수의 발자욱은 언제나 앞에 있다.

리철웅동무가 걸어온 길은 공장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온 선구자의 자욱자욱이다.

그는 과학기술실력을 당일군의 운명문제로 보고 실력전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결사전을 벌려왔다.

그가 오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의 과학기술실력을 소유하게 된것은 그 어떤 천성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학생으로 여기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허심하게 배우는것을 체질화, 생활화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불태웠던가.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였고 모든 장소들이 교정이였으며 모든 시간이 수업시간이였다.

대학전공과목파는 거리가 먼 내화물공학, 크링카공학과 그 련관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한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였지만 무서운 정열의 인간앞에 과학은 자기의 무거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높은 실력을 지니였기에 그는 언제나 앞채를 메고 공장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갈수 있었다.

실례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화벽돌생산용결합제연구과정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연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을 때 과학적주견을 가지고 그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이끌어준 사실, 고장난 내연기관차를 살려보자고 기술자까지 초청해왔지만 끝내 살려내지 못한것을 대담하게 전기기관차로 개조하자는 안을 내놓고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켜 8개월만에 실현한 사실, 반화차전복기를 완전자동화차전복기로 개조할 안을 제기하고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완성시킨 사실, 대형전동기들의 권선철단부위를 전동기를 해체하지 않고도 쉽게 찾아낼수 있게 기구를 만들게 한 사실…

실로 공장에서 세운 과학기술발전목표들과 그 실현과정은 리철웅동무의 높은 과학기술실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렇듯 선구자의 발자욱을 따라 온 공장이 과학기술의 룡마타고 비약의 지름길을 달리게 되였다.

그렇다.

한 당책임일군이 찍어온 발자욱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어떤 삶의 자욱을 새겨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시대의 절절한 당부가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김 영 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머 니 날 을 맞 으 며

어머니들의 밝은 웃음은 온 나라의 기쁨

오늘은 11월 16일, 어머니날이다.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가지가지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날!

이 뜻깊은 명절에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은 더없이 경건하고 감회깊은 심정으로 어머니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드린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어머니들이 웃는다.

눈물을 머금은채 온 집안이 환하게 아니 온 나라가 환해지도록 밝은 웃음을 짓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의 존엄이 로동당시대에서처럼 빛난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명절인 어머니날이 오면 구봉령기슭의 김성녀로인의 집에서도 어머니를 한가운데 모신 자식들의 인사말이 정답게 울리군 한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여 우리들을 더 잘 이끌어주십시오!》

아들, 며느리와 딸, 사위들의 정겨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김성녀로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함뿍 어리군 한다.

그러나 다음순간 온 방안이 환하도록 웃음짓던 로인의 눈가에 고여오르는 물기.

어머니!

해방전 그처럼 부르고싶었던 어머니란 부름은커녕 부모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란 김성녀로인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해방후에야 그는 비로소 고아의 설움을 털어버리게 되였다. 고마운 조국의 품에서 그는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참된 삶의 도리도 깨달았다.

자진하여 인적드문 구봉령의 도로관리원이 된 그는 은혜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찾아 넘고 또 넘으시는 구봉령의 도로관리에 한생을 바쳤고 아들, 딸들과 며느리, 사위모두를 이 길에 내세웠다.

당을 따라 한길을 가는 한가정의 어머니!

이것이 그의 남다른 긍지였고 자부심이였으며 행복이였다.

심산에 남몰래 피는 도라지꽃처럼 높은 령길우에 남모르는 충정의 꽃을 피워온 그를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신분은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 김성녀로인과 가족소대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교상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김성녀동무야말로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어제날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던 천덕꾸러기로부터 선군시대의 태성할머니로,

이것은 김성녀로인만이 아닌 조선의 어머니들이 받아안은 행복과 존엄의 높이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녀인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식들을 나라의 역군,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는 어머니로 값높은 삶을 누려왔던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사회주의 건설시기, 고난의 시기를 거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 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에 이르는 나날 이 나라 어머니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바치고 헌신의 구슬땀을 값높이 흘리였다.

숭고한 조국애와 뜨거운 인간애, 고상한 모성애로 가슴끓이며 자식들을 어엿하게 자래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우고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혈육의 정을 다해 키워왔다.

진정 우리 조국이 걸어온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우에는 자신들의 인생을 오로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의 운명과 하나로 잇고 나라와 민족, 사회와 집단,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어머니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어머니!

이 세상 가장 신성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이 부름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상의 경지에서 더욱 빛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하신 뜻깊은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천만자식들의 뜨거운 존경과 축하속에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시여 어머니들의 명절을 온 나라의 축복속에 경축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

녀성혁명가, 시대의 꽃!

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을 존중하고 내세워주시는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값높은 평가인것인가.

세대를 이어, 세기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받아안은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처럼 행복하고 존엄높은 녀성들은 이 세상에 없다.

뜻깊은 어머니날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마다에 아름답게 피여나는 밝은 웃음은 속삭인다.

어머니 우리 당이 꽃피워준 행복의 웃음이여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웃음은 그리도 밝고밝은것이며 온 나라 천만자식들의 기쁨으로 되는것이라고.

본사기자 김 치 곤

김책시 제강2동의 로인들

쇠물집어머니들의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성강이라고 하면 누구나 주체철을 생각하게 된다. 그보다도 주체철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였고 그것을 현실로 꽃피워 위대한 장군님께 키다란 기쁨을 드린 사람들이 성강의 로동계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성강로동계급의 어머니들인 김책시 제강2동의 14명 로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생의 로년기에도 쇠물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깊이 간직한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상한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받아안고 온 성강땅이 주체철생산으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던 멋해 전이였다.

그때 자식들이 일하고있는 기업소를 매일과 같이 바라보던 로인들의 생각은 한결으로 모아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자식들 못지 않게 우리도 무엇인가 좋은 일을 찾아하는것이 어떻겠소.》

누군가가 한 이 말에 모두가 응해나섰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일이였다.

간절한 소원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길을 정성껏 쓸었고 자식들의 뒤바라지에도 마음을 더욱 기울였다. 한t의 주체철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한 그들이여서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시에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작품으로 향하게 되였다.

이른아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 년로한 몸에도 힘이 솟고 하루라도 뵈옵지 못하면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그들은 금할수 없어 그들은 매일 영상작품주변관리사업에 지성을 다하였다. 명절날, 기념일들마다 영상작품앞에는 할머니들이 밤새워 마련한 꽃다발이 놓이기도 하였다.

할머니들의 뒤를 원송미, 허련화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시안의 청소년학생들도 따라섰다. 그 나날 로인들이 자식들의 일터에 보내줄 지원물자와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를 마련하느라 지새운 밤이 얼마나 되는지 다는 모른다.

일편단심 당을 따르려는 할머니들의 고결한 충정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아니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무엇을 새겨주었던가.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주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정의 한마음안고 남먼저 아침해를 맞군하는 로인들의 모습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로인들의 모습에서 성강의 로동계급, 자식들은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할 결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할머니들이 새겨가는 충정의 자욱은 그대로 자식들이 생산하는 한t한t의 주체철이였고 량심의 자욱은 자식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였다.

백옥같은 충정과 량심을 안고 저 하나의 편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주려는 제강2동 14명 할머니들의 그렇듯 고결하고 참된 삶처럼 성강의 노을은 언제나 붉게만 타고있었다.

하기에 어머니날을 맞이하는 성강용해공의 어머니들의 가슴가슴은 그 누구보다 크나큰 긍지와 보람에 넘쳐있는것이며 어머니날에 드리는 성강의 로동계급의 축하의 인사 또한 그토록 뜨거운 것이리라.

본사기자 홍 성 철

‖수필‖ 어 머 니 의 행 복

뜻깊은 어머니날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수도의 꽃방들과 기념품상점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어머니들에게 드릴 꽃다발이며 기념품들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정답게 안겨들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애틋하고 신성하고 뜨거운것이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느 불밝은 창가에서 은은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

한가정 울타리 뛰여넘어서
조국의 큰집 지켜선
아들아 선군의 장부가 되여
어머니품에 안겨라

…

노래 《어머니의 행복》의 선률이 나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이 가사를 창작한 김은숙동무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날 저는 취재길에서 김광철영웅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떠나간 아들몫까지 합쳐 원군길을 끝없이 걷는 영웅의 어머니, 아들은 비록 곁을 떠나갔지만 조국앞에 그런 자식을 낳아 키운것으로 하여 무한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리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작적흥분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행복, 그것은 언제나 조국이라는 큰집과 이어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한 녀성의 체험담이라고만 하랴.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보아도 자식들을 조국앞에 떳떳하게 내세운 훌륭한 어머니들을 만나볼수 있다.

연약한 몸에 가정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안고 뛰여다니느라 언제 한번 젖은 손이 말라볼새가 없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속 깊은 곳을 헤쳐보면 언제나 조국이라는 큰 대문과 이어진 행복과 자랑이 있었다.

자식들을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이 사회앞에 지닌 의무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것이 어머니들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되였던가.

수난많던 세월 어린 자식들의 자그마한 배조차 불리워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녀인들이였다. 설사 자식들을 오만공수를 들여 키워 내세워도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리기에는 너무도 각박한 세상이였다.

오직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서만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헌신이 아름답게 빛을 뿌리게 된것이 아니던가.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 올라 우리들과 함께 있는 한현경학생, 14살 어린 나이에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소행을 기록하게 여기시여 그가 다니던 학교를 한현경학생의 이름으로 불리우도록 해주시고 그를 키운 어머니에게 국가수훈의 영예와 함께 뜻깊은 대회의 높은 연단에도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품속에서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것이 아니던가.

하기에 다지란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들조차 소중한 그 품을 어머니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하늘땅 끌까지 믿고 따르는것이다.

진정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장 큰 행복,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조국앞에 떳떳하게 내세운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이 세상 가장 뜨겁게 헤아려주고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산다는 긍지와 보람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은 참다운 삶을 빛내여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교단을 사랑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정태순동무

스승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60나이를 바라보는 그였지만 교단에 서면 젊음이 되살아나는듯 정열이 넘친다.

하다면 그 정열은 어디에서 나오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을 넘어온 정태순동무의 아버지는 늘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세 자식에게 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하군 하였다.

조국을 위해 바치라. 아버지의 그 당부는 교원생활의 첫 자욱을 떼던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박사 부교수 정태순동무의 가슴속에 인생철리로 새겨졌다.

한해두해 흘러가는 교원생활은 정태순동무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자랑이였다.

몇해전 선군절 아침 정태순동무의 가정에 제자들이 찾아왔다.

《뜻깊은 이날 생일을 맞으시는 선생님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들을 더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한명의 제자들은 정태순동무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낳아 키운 친자식은 혁명의 군복입고 멀리 초소에 서있어도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가 한생 혁육처럼 사랑해온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위해 정태순동무는 교육자로서, 어머니로서 품을 아끼지 않았다.

교단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90분강의만이 아니라 깊은 밤도, 휴식날도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 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자래운 제자들이 박사로, 기자, 작가로 사회와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면 더없이 기뻐한 정태순동무였다.

하기에 우리 당은 오랜 세월 교육자로서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그를 영광의 단상에 높이높이 세워주었다.

20여년전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었고 몇해전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한 3.8절 음악회에도 참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으며 30여년간을 후대들을 위해 바쳐온 그의 공로를 헤아려 두해전에는 새로 제정된 교원영예훈장 제1급도 수여해주었다.

이제는 그도 조선어학계의 이름있는 박사 부교수이고 국제어학계의 권위있는 어학자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쳐온 그는 올해 5월에도 조로친선국제학술토론회에서 가치있는 론문을 발표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돌이켜볼수록 긍지높은 교육자의 한생을 더듬으며 우리는 그가 한생토록 간직한 심장의 부름을 되새겨본다.

《교단을 사랑합니다!》

교원생활의 첫발을 떼던 그 시절부터 귀밑머리 희여진 오늘까지 교육자의 량심으로,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 내세운 정태순동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그는 성공한 교육자, 행복한 어머니가 되였다.

한생 교단에 대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행복으로 교원의 영예를 떨쳐온 정태순동무의 삶을 빌어 뜻깊은 어머니날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가고있는 이 땅의 교육자어머니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본사기자

어머니조국을 더욱 빛내일 한마음안고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평양체육단 체조감독 인민체육인 김춘림동무—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녀성과학자들— 본사기자 찍음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리경찬동지가 여든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15일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뜻깊은 날을 맞이한 그에게 사랑의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여기에는 수십년세월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적들과 굴함없이 싸워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끝까지 지켜낸 리경찬동지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담겨져있다.

해방전 장풍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인간의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피울수 있었다.

그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여 수십년간 전향을 강요당하면서도 영웅적인 투쟁으로 혁명가의 지조를 꿋꿋이 지켜냈다.

인생의 가장 값높은 영광을 누리고있는 리경찬동지와 가족, 비전향장기수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따뜻한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셔갈 불타는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잘 받들어모시는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해가는 속에 절세의 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티없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그들속에는 최고검찰소 책임검사 김정남동무와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로동자 손혜영동무도 있다.

전사의 도리

주체96(2007)년 5월 어느날 고산진혁명사적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오래도록 서있는 한 일군이 있었다. 그가 바로 최고검찰소 책임검사 김정남동무였다.

준엄하였던 전화의 나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불세출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그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사적관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가슴속에는 철세의 위인들을 총정다해 모셔갈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그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림성골혁명사적지의 한 사적물에도, 사적관의 자외선막이색유리에도 그리고 사적전물들의 지붕에 얹은 동기와에도 그의 깨끗한 충정이 어려있다. 사적관의 강사들을 위해 마련한 치마저고리와 화장품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지난해 여름이였다.

구절골혁명사적지를 참관하고 돌아서던 김정남동무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한동안 사적지주변의 옹벽에서 눈길을 뗄줄 모르던 그는 동행한 일군에게 말하였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장마철전으로 옹벽쌓기를 다시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일군은 김정남동무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사적관의 종업원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돌리는 그가 무척 돋보이였다.

(과연 저 일군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불같은 충정은 어디서 샘솟는것인가.)

그후 먼길을 오가며 옹벽쌓기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하여 전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김정남동무를 대하는 사적관종업원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김정남동무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은 비단 고산진혁명사적관에만 어려있지 않다.

연풍혁명사적관, 장자산혁명사적관, 향하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도안의 혁명사적관들마다에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 김정남동무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었다.

오늘도 그는 충정의 길을 걷고있다. 자기를 키워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백옥같은 마음을 안고.

순결한 도덕의리심

여러해전 봄 어느날 동대원구역 문신2동에 있는 손혜영동무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료리축전에 참가한 손혜영동무가 또다시 상장과 메달을 받았던것이다.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는데 손혜영동무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인 김혁동무가 웬일인가고 묻자 손혜영동무는 조용히 뇌이였다.

《이렇게 상장과 메달을 받고보니 우리 수령님들께 기쁜 소식을 아뢰이고싶은 생각이 나서…》

김혁동무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안해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고있었던것이다.

해마다 봄이 올 때면 꽃판목과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못 잊을 7월을 맞을 때면 관리도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기여한 안해였다. 이윽고 김혁동무는 안해에게 말하였다.

《우리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충정의 길을 걸읍시다.》

그후 손혜영동무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관리도구들을 마련하느라 잠도 휴식도 잊다싶이하였다. 어머니인 김명옥녀성과 딸 달미도 그를 적극 도와나섰다.

어느해 이른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수도에서 100여리 떨어진 곳에 가서 마련한 수삼나무를 자동차에 싣고 돌아오던 손혜영동무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쳤다. 자동차가 고장으로 멈추어서게 되였던것이다. 게다가 때아닌게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난색을 짓고있던 운전사가 손혜영동무에게 다가와 아무래도 다음날로 미루어야 할것같다고 말을 내비쳤다. 그때 손혜영동무는 말없이 나무모들을 비닐박막으로 정히 감싸고있었다. 차거운 비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는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이 걸음을 늦추면 어쩐지 제 마음속에 티가 앉는것만 같아 걱정이 되는군요. …제가 가까운 공장에 가서 호소해볼테니 어서 수리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난 그는 비발속으로 멀어져갔다. 그러는 손혜영동무를 운전사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일손을 잡았다.

손혜영동무의 생활은 이렇게 흘러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온 손혜영동무에게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본사기자 현 경 철

우리 나라 팀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1:0으로 타승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팀이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한 우리 팀은 타이팀을 8:0으로 이긴 일본팀과 대전하였다.

15일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우리 나라 팀과 일본팀사이의 결승경기가 있었다.

우리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은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일념안고 기세충천하여 경기장에 나섰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하게 벌어졌다. 우리 선수들은 백두의 훈련열풍을 일으키며 다져온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경기시간 42분경 우리 팀에서 먼저 득점하였다.

후반전에 들어가 우리 팀 선수들은 기세를 올리며 중장거리련락과 불의적인 역습속공으로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나갔다.

잃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팀 선수들은 공격에로 나왔지만 우리 팀 방어수들에 의해 거듭 좌절당하였다.

드디어 우리 나라 팀은 1:0으로 일본팀을 타승하고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제1위를 함으로써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강한 집단주의정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지니고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우승을 쟁취한 우리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의 자랑찬 성과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명 언 학 습 을 실 속 있 게

재령군 례림리당위원회에서 절세위인들의 명언의 진수를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주옥같은 명언들을 리안의 일군들과 선동원들, 5호담당선전원들에게 먼저 해설침투시키고 대중속에 들어가 선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하여 리안의 그 어디에서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명언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심장에 조아박게 하였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한창인 제10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기적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인민들이 준 필연이다.》를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이 과정에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영농전투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조 경 옥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단마르크녀왕에게 신임장 봉정

강용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6일 마르그레테2세 단마르크왕국 녀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르그레테2세녀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녀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랑에 대해 말할 권리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끝없이 넘쳐흐르는 이 땅의 그 어디에서나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의료일군들의 긍정적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환자의 침상곁을 지켜 며칠밤을 밝히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옷으며 왕진길에 나서는 의료일군들,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며 환자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다하는 의료일군들…

전하고 전해도 끝이 없을 그 많고많은 이야기들중에는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 ※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지난 시기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얼굴과도 같은 국경도시의 보건일군들답게 이악하게 노력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더우기 10여년전 김명수동무가 이곳 고려치료과 의사로 배치되여온 이후부터 진료소는 담당지역 주민들속에 더욱 소문이 났다. 약물을 쓰지 않는 고려의학적방법으로 만성질병환자들을 치료하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료소로는 여느때없이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다.

김명수동무는 더없이 바빴다. 얼굴에 병색이 떠돌던 사람들이 치료후 얼마 안되여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는 의사로 일하는 긍지를 한껏 느끼며 치료사업에 더욱 열정을 바쳤다.

갈수록 늘어나는 주민들에 대한 안마치료를 온종일 쉼없이 해야 했던것으로 하여 그의 옷은 언제 한번 마를새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즉했다.

건강과 활력에 넘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만진다면 이런 헌신의 낮과 밤을 열백번 바쳐도 힘들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부터인가 김명수동무는 풀수 없는 의혹에 잠기였다.

그토록 진정을 다해 의료봉사를 해왔건만 일정한 기간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일부 주민들이 진료소에 오지 않았던것이다. 사연을 알아보려고 주민들의 집을 찾았던 김명수동무는 그날 밤 잠들수가 없었다.

문득 그의 귀전에는 몇시간전에 만났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가슴을 허비며 아프게 들려왔다.

《언젤가 선생의 치료를 받고난 후 난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잤수다. 그 다음날 진료소에 다시 갔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 그래 더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왔수다.》

《확실히 침, 뜸보다는 안마치료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딲을 닦을새도 없이 환자들의 치료에 전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느라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정 아플 때 진료소에 갈 결심을 했던거지요.》

김명수동무에게는 주민들의 이 말이 자기에 대한 《신소》처럼 여겨졌다.

나라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주민들이 사는 곳마다에 진료소를 내오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다름아닌 우리 진료소의료일군들에게 맡겼는데 나는 지금껏 뭘하고있었는가 하는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으면 치료시간을 더 늘이고 왕진을 청하면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달려가 돌보는것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해온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후 그는 치료시간이 짧으면서도 효과가 높은 의료기구를 제작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였다.

아직 방도를 찾지 못한 안타까움에 모대기는 그에게 진료소단계에서 치료할 환자들은 제한되여있는것이라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상급병원으로 파송하는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련에 부닥칠 때면 자주 생각키우는 못 잊을 대학시절이 그의 머리속에 다시금 떠올랐다.

어느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담임교원은 자기 진료소 담당의사의 이름을 알고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어나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일어설 념을 못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누구나 담당의사를 곁에 두고 사는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도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고 말하는 교원의 목소리는 저으기 격정에 젖어있었다. 그리고나서 그가 사람들모두가 담당의사의 일상적인 보호속에 병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말할 때 김명수동무는 한생을 진료소의 사로 살 결심을 굳혔다. …

착상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채 무진 애를 쓰고있던 그에게 진료소의료진단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지혜와 열정을 합쳐주는 의료집단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새로운 결심을 새겨주었다.

그후 그는 여러 단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미개척의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내짚었다.

성공의 그날까지 몇해가 흘렀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명수동무는 천여일이 걸렸다고 혼연스레 대답하였다.

걸어온 자욱을 해와 달이 아니라 날과 날의 루적으로 기억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던 그때마다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고 필요한 전자부속품의 구입을 위해 애타게 뛰여다닌 이들의 헌신의 하루하루를 가슴뜨겁게 안아보았다.

그렇게 바쳐온 피타는 노력이 있어 이곳 의료집단은 체질과 질병별특성에 따라 수값을 설정하면 자체의 프로그람에 따라 동작하면서 환자의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현대적인 척추견인치료기를 만들어내놓을수 있었다.

안마료법에 비해 치료효과가 좋으면서도 의료일군들의 육체적부담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치료기의 도입으로 진료소에서는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척추치료를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였다.

그후 김명수동무는 약초의 증기를 리용하여 여러 계통의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손쉬운 방법으로 치료하는 침 대용고려약물증기치료기를 또다시 개발하였다. 침을 맞을수 없거나 화상성흉집으로 하여 뜸뜨기를 거절하던 사람들속에서 더욱 인기를 모은 이 치료기는 나오자마자 시안의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어느해 일요일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았던 의사 심순정동무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김명수동무가 그곳 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열띤 토론을 벌리고있었던것이다. 그가 토요일 저녁이면 어디론가 급히 떠났다가 월요일 새벽녘에 급히 집으로 돌아오군 한 사연을 그제서야 알게 된 심순정동무의 감동은 컸다.

영글은 풋별들이 유난히도 빛을 뿌리던 깊은 밤 함께 깊을 걸으며 김명수동무에게서 새로 제작하게 될 치료기의 작용원리에 대해 듣는 심순정동무의 가슴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치료기만 완성되면 몇달째 그자신이 스스로 말아 정성을 기울여온 영예군인의 건강이 인츰 회복될것만 같았다.

다음날부터 그는 호담당의사 조남혁동무와 함께 김명수동무의 연구사업을 도와나섰다.

특정한 파장의 먼적외선을 여러 방향에서 고루 내보내면서도 직업별, 남녀별특성에 따라 시간파 온도설정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 치료기의 제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천리, 만리길도 웃으며 달려갈 불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에 의해 거리조절기능을 가진 먼적외선고열찜질치료기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제작되였다.

그후 몇달째 심순정동무로부터 치료를 받아온 영예군인은 먼적외선고열찜질치료를 받고 병을 인츰 고쳤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개혁동에서 사는 한 주민은 이 진료소 의료일군들이야말로 당이 바라는 참된 의료일군들이라고,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허리병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이제는 체육도 하고 대지도 마음껏 활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진정에 넘친 주민들의 이 목소리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사랑은 파연 그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

그후 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수동무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진료소에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무수한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종전의 치료방법으로써는 우리 시대 의료일군의 본분을 다해나간다고 말할수 없음을 자각한 파장 리명희, 의사 김영춘, 약제사 김정순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집단은 지난 몇해동안 최신의학과학기술성과를 림상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여 오늘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앞선 의학과학기술에 의한 치료방법으로 척추질환은 물론 소화기계통, 비뇨기계통, 순환기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의 만성질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하여 상급병원으로의 파송률을 거의나 줄이였다.

병이 나면 이 진료소가 먼저 생각난다며 스스럼없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든 치료예방기관을 곁에 두고 정상적으로 건강을 돌보며 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을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 ※

신의주시 2중3대혁명붉은기 본부지구종합진료소는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한 많은 일군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진료소는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와 전국의료기구전시회들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정에 이룩한 이들의 성과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귀전에는 회의때마다 버릇처럼 외우군 한다던 소장 김명수동무의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다.

자기를 깡그리 바쳐다는 그것만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말라. 만족을 모르는 앞선 의학과학기술성과로 인간에 대한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사랑과 정을 말하라.

본사기자 방 경 찬

혁신의 봉화 더 높이 추켜들고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를 기어이 완공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공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달 동안에만도 이들은 3 700여㎥의 물길굴확장과 5천여㎥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대상의 물길굴, 구조물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황해남도인민들이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도록 하는데서 물길공사를 다그쳐 끝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돌격전을 힘있게 벌렸다.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돌격대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기홍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맡은 일을 무조건 수행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이들은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해결해오고 어려운 모퉁이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면서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었다.

또한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건설물들의 질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었다.

려단의 일군들은 공사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신속히 풀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돌격대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결과 수많은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천수백㎥의 물길굴과 잡판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나가면서 맡은 대상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특히 평성시 대대와 성천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대상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전투력있는 단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자강도려단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4종에 60여개의 조립지구와 공구, 3종에 2 400여개의 나사를 자체로 해결하여 수십m의 철잠판을 조립하였다. 려단에서는 새로운 용접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2배로 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남포시려단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번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대대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강서구역, 천리마구역대대의 일군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실천적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켜 건설속도를 높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발해나선 다른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암질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굴확장 및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었다. 또한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여나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려단들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맡은 대상건설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년간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조국의 밝은 빛을 더해주는 뜨거운 지성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의하여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선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위대한 선군시대에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된 여기 청천강기슭에서 우리가 수천수만 kW의 전기보다 더 소중한것으로 받아안게 되는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간들의 고결한 애국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전기의 귀중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중에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남탄부피복공장 지배인 황덕조동무도 있다.

한줌의 석탄에 얼마나 진한 탄부들의 땀이 스며있는가를 자신의 눈으로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한 황덕조동무는 전력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뜨거운 애국의 지성을 다하였다.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량심의 파업으로 받아안고 당앞에 자기 사업을 총화받는 심정으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하기에 안주의 탄전에서 발전소건설장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황덕조동무의 마음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함께 있었고 평안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은 그를 우리 지배인동지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정주시체신소 부원 림성옥동무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일 불같은 열의를 안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간 평안북도 운전려관 로동자 박숙영동무는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쳤을뿐만아니라 수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었다.

묘향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리선희동무 역시 돌격대원으로 탄원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면서도 10여차례에 걸쳐 많은 생활필수품들과 식료품들을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순결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멀고먼 발전소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며 변함없는 지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속에는 내각사무국 아래단위 로동자 정팡일, 황해남도상업학교 로동자 차례영, 해주시 부용동 4인민반에 살고있는 김경민동무들도 있다.

그 길을 가라고 어느 누가 등을 떠민것도 아니지만 당에서 그처럼 걱정하는 전기문제를 하루빨리 푸는것이 곧 공민으로서의 응당한 본분이며 도리라는 자각을 안고 청천강기슭에 애국의 발자취를 새겨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가 자랑하고 기억하는 참다운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다.

조국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줄 아는 사람들, 긴장한 전기문제를 두고 걱정을 앞세우기 전에 자신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 시련을 이겨내는 조국의 앞길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주려는 뜨거운 심장을 안고 사는 이런 애국자들의 마음도 합쳐져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선군시대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는것이다.

본사기자 승 철 진

애국의 자욱으로 빛나는 청춘시절

연산염소목장 청년동맹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피끓는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떳떳한 삶의 자욱을 남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청춘이라 하겠는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미더운 청춘들이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그들가운데는 연산염소목장 청년동맹원들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영길동무를 비롯한 목장의 청년동맹원들은 밤늦도록 한자리에 모여앉아있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3년전의 12월, 피눈물의 나날들이 눈앞에 어려왔던것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천만뜻밖에 잃고서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았는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낀 그들이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왔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발벗고나섰다.

한영길, 황경희동무들은 수십리길을 걸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낼 진귀한 꽃씨와 꽃나무를 구해왔다.

이런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안고 청년동맹원들은 정성다해 마련한 관리도구와 꽃나무들을 가지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사리원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실 때에도 그들은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가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멀고 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게 된 청년동맹원들의 마음은 백두대지에로 끌없이 달리였다. 이때에도 그들은 수많은 지원물자와 함께 어느 한 기계공장 로동자들과 지혜를 합쳐 마련한 부속품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남기려는 이들의 지향은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일에도 아름다운 자욱을 새기였다.

이들은 특류영예군인 김준혁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영예군인의 집에 자주 들러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귀한 보약재들과 생활필수품들도 마련하여 가져다주었다.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가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랑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들도 알려주고 대고조전투장들의 벅찬 새 소식들도 남먼저 전해준 청년동맹원들이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에 지난 8월 황경희동무는 뜻밖의 일로 밤길에 쓰러져있는 한 로동자를 업고 수십리 떨어진 병원에까지 달려가 소생시켰으며 강물에 빠져 위험에 처했던 세명의 학생들을 한목숨 내대고 구원하여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이 나날 한영길동무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한영길동무는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으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동맹원들을 교양하고 적극 이끌어주어 얼마전에는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칭호를 쟁취하였다.

어머니당의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하리라!

이런 드넓은 신념을 지니고 그들은 오늘도 보답과 헌신의 길에 값높은 청춘시절을 변함없이 새겨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은 한영길(왼쪽), 황경희(오른쪽)동무들

참된 삶의 흔적은 심장에 남는다

함흥제분공장 제분1작업반 선동원 전경주동무

참된 삶의 흔적은 어디에 새겨지는가.

함흥제분공장 제분1작업반 선동원 전경주동무가 걸어온 길을 놓고 우리는 그 대답을 찾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휴식을 적게 하고 잠을 덜 자더라도 맡은 분공을 수행하기 위해 품과 노력을 많이 바쳐야 하며 거기에서 혁명가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 20대 초엽의 초급청년동맹일군이였던 전경주동무는 선동원으로 임명되였다. 일도 할래, 청년동맹사업도 할래 바쁜 그에게 있어서 생소한 선동원사업은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선동원이란 어떤 사람인지, 선동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뚜렷한 표상도 없었다.

어느날 사포구역전쟁로병기동에술선동대가 공장에서 경제선동을 하였다. 나이는 많아도 패기와 정열에 넘쳐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에 나선 로병들의 모습에서 전경주동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야간교대성원들앞에서 로병들의 당부대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그들을 혁명선배로 더 잘 존대하자는 내용의 선동사업을 하였지만 어쩐지 남의 말을 외운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고충을 헤아린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선동원이지.

말로 하는 선동보다 실천으로 하는 선동의 실효가 더 큰 법이요.》

그날 전경주동무는 초급당일군으로부터 로병기동에술선동대 대장의 안해 역시 전쟁로병이고 오랜 병환으로 운신하기 힘들어하는데 아들들은 다 군사복무를 하다나니 집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것, 그런 속에서도 대장아바이는 기동에술선동대 활동을 중단없이 벌리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며칠후 전쟁로병이 기동에술선동대활동을 벌리기 위해 먼곳에 있는 단위로 떠난 날 저녁 로병의 집에 한 처녀가 나타났다.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밥을 지어 로병어머니에게 대접하고 난 처녀는 친혈육도 주저할 궂은일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밤늦게까지 술한 빨래를 하는 처녀를 두고 이웃사람들은 혀를 찼다. 친딸인들 저보다 더하겠는가고. 그 처녀가 바로 전경주동무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 그는 하루와 같이 전쟁로병가정을 돌는 길을 걸어왔다. 청년동맹원들이, 온 작업반이 그를 따라섰다.

고난의 행군시기 그는 또 한번 성장했다.

엄혹한 시련은 전경주동무의 가정에도 들이닥쳤다. 그의 연약한 어깨로는 한가정을 유지하기도 힘겨웠다. 앓는 시어머니에게 멀건 죽을 대접할 때, 어린 자식이 밥투정을 할 때 그의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고였다. 그럴 때마다 동요가 일어나군 했다. 그도 한가정의 며느리, 어머니, 주부일진대 왜 마음속동요가 없었겠는가.

그의 마음속동요를 알게 된 초급당비서 변창덕동무가 준절히 타일렀다. 시련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선동원이다. 선동원은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나가는 대오의 기수이다.

초급당일군의 충고를 들으며 그는 선동원으로 임명받던 때를 돌이켜보았다. 어느 사이엔가 신들메가 풀어진 자기자신에게 엄한 채찍을 들었다.

(내가 당의 믿음을 순간이나마 잊고 살다니?!)

새롭게 분발해나선 그는 합리적인 제분공정확립을 스스로 말아나섰다. 제분실수률을 1%만 높여도 국가에 주는 리득은 대단한것이였다.

무엇보다 제분공정전반을 환히 꿰들어야 하였다. 설비가 배치되여있는 1층부터 6층까지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오르내리자니 무척 힘겨웠다. 그러나 물러설수 없었다.

선동원이 제분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공정확립에 달라붙었다는 소문은 삽시에 퍼졌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술자들도 못한 일을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아낙네가 뭐 해낼수 있겠는가고.

조국에 보탬되는 일이라면 누구든 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였다. 되돌이공정을 확립할 착상을 한 그는 공장의 기능공,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제작설치에서도 성공하였다. 제분실수률은 5%나 높아졌다.

일터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였기에 선동사업을 한번 해도 정열을 깡그리 쏟아부었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언젠가 휴식시간에 제품의 질제고와 관련한 선동사업을 할 때였다.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작업반원들의 심장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준 그는 질이 떨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대공들의 기능을 높이는것이 질제고의 중요한 방도라는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우리 선동원의 말은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

누구나 감탄해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동자료 한건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며칠밤을 지새우며 기술서적들을 탐독하고 기대별특성을 파악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선동으로 그친것이 아니라 기능이 어린 작업반원들을 맡아 쟁쟁한 기능공으로 키워냈다.

전경주동무에게 있어서 작업반원들은 혈육이였고 사회생활의 첫발을 뗀 공장은 집이나 같았다. 집단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것은 그의 삶의 전부였고 기쁨이였다. 어린이들에게 보내줄 당파류생산을 위한 제분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진행될 때마다 풍족하지 못한 제 집쌀독을 털어 작업반원들의 식사보장을 한것은 그 몇차례였고 일터에 안착되지 못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작업반원을 옳은 길에 세워주기 위해 걸은 밤길은 또 얼마였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대공의 첫걸음을 선동원밑에서 뗐습니다. 엄한 배도 들고 따뜻한 정도 쏟아부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엄격한 스승같고 어찌 보면 다심한 어머니같고 또 살뜰한 언니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분1작업반 리혜란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전경주동무가 자기의 피를 넣어주어 사경에서 구원하고 소생시킨 녀성의 마음속에도, 사랑파정을 다해 조선로동당원으로, 혁신자로 키워낸 사람들의 심장속에도 그의 모습은 뜨겁게 새겨져있다.

발자욱은 지워져도 참된 삶의 흔적은 대중의 심장속에 남는다. 그런 고결한 삶을 당과 조국은 값높이 평가한다. 당에서는 근 20년간 선동원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온 전경주동무를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에 불러주었고 오늘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으로 내세워주었다.

우리 당이 기억하고 대중의 심장속에 남는 생을 살라. 이것이 함흥의 녀성선동원의 삶이 시대를 울리는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절세위인들을 모신 이북의 어머니들이 부럽다》

절세위인의 따뜻한 축복속에 어머니날을 맞이한 이 땅의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뜨거운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그 품을 떠나 자기들의 보람찬 어제와 오늘, 보다 행복할 래일을 생각할수 없다는 그것이다.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며 남조선의 녀성인권문제전문가가 터친 진심의 토로를 들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현시대에 녀성문제해결의 진정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녀성들의 아름다운 화원인 북의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녀성세계, 희한한 세계를 보았다. 이북이야말로 녀성들의 천국이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녀성들에 대한 남조선녀성들의 끝없는 동경심이 그의 이 말속에 함축되여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한 녀교원은 《녀성의 존엄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녀성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이북은 정녕 녀성의 왕국, 녀성의 락원이다. 도시와 농어촌, 공장과 마을 등 가는 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이 있어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쌍둥이만 낳아도 그들을 키울 생각때문에 걱정의 한숨소리로 땅이 꺼질 지경인 이남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말하였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 공화국의 어머니들처럼 가정과 사회의 존경속에, 남편들과 자식들의 선망속에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녀성들은 없다. 우리의 녀성들은 선군시대 녀성혁명가라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존엄높은 칭호로 불리우며 조국의 축복속에, 사회와 가정의 사랑속에 아름다운 생을 꽃피워가고있다.

그러니 남조선녀성들이 우리 공화국의 감동깊은 현실에 대해 어찌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언제인가 텔레비죤을 통해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이 출연한 장면을 보게 된 남조선의 한 녀성인사는 수십명의 부모잃은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운 어머니들, 집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영웅의 어머니들, 귀한것이 생길 때마다 건설장으로 찾아간 어머니들, 어린이를 많이 낳아 모성영웅으로 된 어머니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어 자기들이 훌륭한 어머니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고 말하면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키워오신 녀성들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자주위업의 대를 꿋꿋이 잇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니 이북의 어머니들이 어찌 장군님의 품을 은혜로운 사랑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 노래하지 않겠는가.》

남조선의 한 녀성인사는 《이 땅의 녀성은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이다. 녀성들은 꽃으로 필 래야 필수 없는 동토대에서 식어가고 숨져가고있다. 이 땅에서는 녀성들이 잡초처럼 짓밟히지만 저 이북에서는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노래되고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남에서는 녀자가 꽃이 아니라고 절규하고 이북에서는 녀성은 꽃이라고 노래하는것일가. 그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북이 그렇듯 리상적인 녀성복지사회로 된것은 녀성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워주시고저 온갖 은정을 다 베푸시는 따사로운 해님을 모신 덕분이다. 해님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듯이 태양이 없는 녀성화원을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이북녀성들의 은혜로운 해님은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렇다. 일찌기 우리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담당자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로 이 땅우에 녀성존중의 화원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 녀성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실시된 국가적시책들에도 깃들어있으며 도처에 일떠선 산원들과 탁아소, 유치원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그러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하늘같은 은덕에 매혹된 남녘겨레들의 격정의 목소리는 그렇듯 뜨겁고 진정에 넘친것 아니랴.

어느날 저녁 목포시의 한 공원에서 울려나온 《안해의 노래》를 들으며 거기에 모인 여러명의 남조선녀성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저저마다 터놓았다.

한 녀성은 《남녘의 녀성들이 소박맞은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고있을 때 북에서는 축복의 꽃속에 묻힌 녀성들에게 남편들이 〈사랑하시라〉, 〈안해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끼고 위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령도자님의 사랑의 정치로 녀성존중의 풍토가 정착된 북의 모습이다. 진정 김정일령도자님은 녀성들의 친어버이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고있던 다른 한 녀성도 흥분을 금치 못하며 《평양방송을 들으니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산모들의 건강회복에 쓰라고 평양산원에 많은 량의 산물을 보내주셨다고 한다. 한 나라의 령수가 녀성들에게 이렇듯 다심한 사랑을 베푼적은 고금동서에 없다. 이북은 참말로 녀성천국이다.》라고 말하여 주위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대하며 깊은 감명을 받는 사람들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이북의 어머니들은 복받은 녀성들》이라고 한 서울시 마포구의 한 녀성의 가슴속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오늘 남녘겨레들은 이 땅에 녀성존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우리 녀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옥류아동병원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을 새롭게 일떠세우도록 온갖 배려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소식들을 크게 보도하면서 이것은 남조선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한 녀성인권활동가는 어느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이 그렇듯 리상적인 녀성복지사회로 된것은 녀성들에게 온갖 은정을 다 베푸시는 따사로운 해님을 모신 덕분이다.》

그렇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누리고있는 온갖 행복은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속에 꽃펴났다.

하기에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따뜻한 봄날의 화원처럼 만발하는 녀성들의 값높은 삶,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가꿔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어버이로, 위대한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삼가 고마움의 큰절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선군태양의 해발아래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한 삶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태양의 품속에서 지지 않는 꽃

남조선녀성들 열렬히 동경

녀성들을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고 삶을 빛내여주는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 북반부를 열렬히 동경하는 목소리가 남조선 녀성들속에서 더욱 높아가고있다.

평소부터 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옹호를 주장해온 김은주녀성은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남에서는 아직도 남존녀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조장되고있지만 녀권이 존중시되는 북에서는 남녀평등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있다.

이북녀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이 정계와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최정애녀성은 《이북에는 남자들은 물론 우리 같은 녀성들도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없다. 민중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이북에서는 녀성들이 일할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은 물론 사회적혜택속에서 떠받들리우며 살고있다. 정말 그들이 부럽다. 우리도 그런 제도하에서 살아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피력하였다.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녀성은 공화국북반부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록화물을 보고나서 《녀성들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가정치에 참가하고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난날 사람값에도 못 가던 녀성들이 파학자, 인민배우, 의사로 될수 있은것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덕분이다.》고 마음속진정을 터놓아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녀성존중의 세상을 그리는 남조선녀성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들에는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천대, 인권유린만을 강요하는 사람 못살 남조선사회에 대한 저주와 울분이 비껴있다.

남조선녀성들은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랭대를 받고있다.

그래서 녀자로 태여난것을 저주하며 제손으로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끊는 참상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에 의해 녀성들은 더욱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길가던 두 녀인을 붙잡아 제놈들의 병영 변소에 가두고 몰간한 후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고는 희희덕거리며 구경한 흡혈귀들의 만행, 백주에 벌거벗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 대해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항의한다 하여 그 녀인의 집 물독에 쥐약을 풀어넣어 일가족을 멸살시키려 한 독약살해미수행위…

남녘땅 곳곳에 가시철망을 치고 거만하게 도사리고있는 미군기지들, 그것은 수난과 불행속에 몸부림치는 식민지 남조선녀성들의 참상을 담고있는 축도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녀성인권문제전문가 김순희는 시국토론회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행사하는 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우리 녀성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하루도 없다.

정녕 양키들에게 생명도 정조도 무참히 빼앗기는 우리 녀인들은 꽃은커녕 마구 짓밟히는 길가의 잡초의 신세와 다를바 없다.

이 땅의 우리 녀성들을 보호해주고 꽃으로 피워줄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줄 진정한 품은 태양의 품, 이북의 공화국의 품이다.

태양의 품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참된 삶을 누리는 이북의 녀성들이 정말 부럽다.

남조선녀성들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이북의 녀성들은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고 하면서 행복의 절정에 오른 우리 녀성들에 대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야 참된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굳세게 살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미래과학자거리

도이췰란드기관 인터네트에 소개

도이췰란드 MS려행사가 1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평양에 새로 일떠선 거리》라는 제목으로 미래과학자거리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들을 올렸다.

글은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몇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미래과학자거리가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내부는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으로 이루어지고 고급가구와 비품까지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살림집주변에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도 꾸려졌고 원림조성도 이채롭게 해놓았다. 이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조선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되였다.

그이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축으로 웅근하나의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을 갖춘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게 되였다.

지난 10월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거리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선경거리가 일떠섰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홈페지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과 살림집내부를 보여주는 10여매의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녀성천시가 가져온 자본주의사회의 비극

어머니!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만 봐도, 그 모습을 언뜻 떠올려보기만 해도 마음에 따스한 해살이 비쳐든다. 그 해살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고 정이며 헌신이다. 진정 어머니의 락은 자식을 위해 끝없이 바치는데 있다. 그 어느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바친 모든것을 희생으로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 비낀 어머니들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들의 머리속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는 퍼그나 오래전의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더없는 부담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는것은 물론이고 죽이는것조차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아이를 버리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버리고있다. 이제는 버리는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식은죽먹기로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한 녀성이 낳은지 석달밖에 안된 젖먹이어린것을 제손으로 죽여버린 범죄행위가 폭로되였다. 조사파정에 그가 13개월동안에 자식모두를 질식시켜 죽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어머니가 2살 난 딸을 살해하고도 한달동안이나 그것을 숨기고 먹자판을 벌려놓은 사실도 있었다.

그야말로 상상밖의 일이다.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이 나라에서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한 출판물이 미국인들은 결혼과 아이문제는 별개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책임을 휴지통에 내던져버렸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자본주의모델》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실태가 이 정도이니 다른 나라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일본을 보아도 그렇다. 이 나라 젊은 녀성들의 태반이 자식을 필요없는것으로 여기고있다. 그러다나니 어머니가 태여난지 불과 10분도 되나마나한 갓난아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도 돈이 없어 키울 자신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뻐젓이 뇌까리는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되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는 지바현에서 한 녀성이 2명의 자기 딸을 질식시켜 죽였으며 에히메현에서도 한 녀성이 자기 자식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어머니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자식들을 죽인 범죄가 폭로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심지어 서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리유를 밝힌 책까지 출판되여 녀성들의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녀성들이 어머니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덩이를 죽일 정도로까지 잔인해진 이 참혹한 현실, 파연 누가 이런 비극을 가져다주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뿌리깊은 녀성천시가 가져다준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천시는 고유한 속성이다.

미국이 여직껏 《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사실만 봐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산전산후휴가제도도 명색상 일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적보호를 제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름아닌 녀성들이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직장에서 오랜 시간 혹독한 로동을 하면서도 언제 한번 임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70%이상이 녀성들이다.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눅거리일자리마저 떼울가봐 가슴조이며 살고있다. 요행 일자리를 얻었다가도 이러저러한 리유로 하여 남성들보다 먼저 해고되기가 일쑤이기때문이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1.1%가 녀성들이 취업에서 차별을 당하고있다고 밝혔으며 93.2%는 로동현장에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고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배척당하는 녀성의 존엄과 권리, 이속에서 모성의 권리에 대해 생각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녀성차별, 녀성천시를 뿌리뽑지 않는 한 모성의 권리를 빼앗겨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비극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로씨야대통령

조선과 이란의 《핵위협》에 대해 떠드는 미국의 목적을 폭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국방공업종합체문제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조선과 이란의 《핵위협》에 대해 떠드는 미국의 진짜목적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조선과 이란의 《핵위협》을 구실로 내대는것은 저들의 실제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진짜목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제외한 핵보유국들 특히 로씨야의 핵잠재력을 무력화하고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가 이란의 《미싸일위협》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룩된 오늘에 와서도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은 계속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을 핵 및 미싸일무기분야에서의 균형을 파괴하고 세계적 및 지역적안정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는 그 어떤 미싸일방위체계도 극복할수 있는 타격체계들을 개발할것이며 전략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빠리에서

련속적인 테로공격사건 발생

프랑스의 빠리에서 13일 테로공격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날 밤 무장피한들이 도시중심부에 있는 한 극장에 뛰여들어 100여명의 인질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림과 도이췰란드림사이의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축구경기장주변에서 여러차례 폭탄폭발이 일어났으며 일부 식당들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14일현재 1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는 빠리에서의 련쇄적인 테로는 폭탄과 자동총으로 무장한 자기 조직성원들이 단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대통령 올랑드는 한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이번 사건들을 전례없는 테로행위로 단죄하였으며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지역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빠리에서 이번에 감행된 극악한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만민복지》사회의 기막힌 현실

얼마전 미국의 프린스톤종합대학의 2명의 교수가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난 1999년부터 중년백인들의 사망률이 매해 평균 0.5%씩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년나이의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병으로 하여 고통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식생활습관이나 환경조건의 개선, 의료기술발전 등으로 하여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오늘의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중년백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사망률증가의 원인은 병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살과 술 또는 마약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생은 누구에게나 귀중하다. 어째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파괴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과 마약에 빠지고 자살을 택하여 그처럼 귀중한 생을 마구 버리고있는가.

그것은 미국에는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보람차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자유가 없기때문이다. 있다면 돈만 있으면 그 무엇도 다할수 있다는 돈많은자들의 자유뿐이다.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생충같이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특권층의 자유이다. 최부유층에게 팔리워 착취당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무》이고 임의의 시각에 실업당할수 있는것이 바로 그들의 《자유》이며 《권리》이다. 미로동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10월 17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만 해도 25만 9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3 000명 더 많은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곧 죽음이다. 실업으로 하여 살아갈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빠지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미국의 교수들은 사망자들이 대체로 고등학교만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은 많은 근로대중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여오르는 엄청난 학비를 낼수 없기때문이다.

학비를 제대로 물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120여만명이나 증퇴하고있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어느 한 기관이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학기간에 학비를 물지 못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빚단련을 받고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학졸업후 매달 평균 400US$씩 10년동안 빚을 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탄하고있다.

대학생들의 빚은 약 1조 3 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뿐아니라 대학생들도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종합대학에서 최근 10여개월사이에 대학생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콜레인종합대학에서는 올해에 4명의 대학생들이 자살하였다. 뉴욕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도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다른 한편 어느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3년에 16만 9 000명의 청소년들이 헤로인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보는바와 같이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운운하는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아래에 펼쳐져있는것은 인간생지옥뿐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택할수 있는 길은 바로 사회에 대한 반항의 표시인 자살의 길이며 그 사회를 저주하며 술과 마약에 빠져 자신의 육체를 버리는 길이다. 다시말하여 자살할 《자유》, 육체를 망치는 《자유》가 바로 미국에서 하층인간들이 아무때나 가질수 있는 《자유》인것이다.

백인들속에서도 이런 《자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진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무참히 살해당하고 해고당하며 모욕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야 더 론해 무엇하겠는가.

앞으로의 생활을 꽃피울수 없어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미국은 인권의 표본이 아니라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 못하는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톡톡히 알수 있다.

삶의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자유》가 살판치는 미국.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날로 부패하고 찌그러져가는 사회, 앞날이 없는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세상에 다시한번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수리아문제를 둘러싼 로미대결

수리아문제를 둘러싸고 로미관계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싸고 격화되였던 로미대결은 지난 9월 30일 로씨야가 수리아의 요청으로 그 나라 령내에 있는 테로반란세력소탕에 나선것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이슬람교국가》라는 국제테로조직이 이라크와 수리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국가수립을 선포하자 여러나라들을 휘동해가지고 그 《소탕》에 나섰다.

미군주도의 국제련합군이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습을 들이댔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령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테로분자들의 활동은 저조해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해졌던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미국이 《반테로전》에 나선 목적은 테로분자소탕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미국의 목적은 중동지역에서 반미적인 수리아정부를 전복하자는것이다. 하여 미국은 《테로분자소탕》을 위한 국제련합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수리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로씨야와 이란을 배제하고 《이슬람교국가》와 직접 싸우고있는 수리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반미자주적이며 더우기는 로씨야와 동맹관계에 있는 수리아의 현 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적인 정부를 세워 저들의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여러해째 내전으로 시련을 겪고있는 수리아의 령내에 《이슬람교국가》가 생겨나자 《반테로》의 미명하에 《소탕》작전에 나선것은 바로 이때문이였다.

미국은 지금 수리아정부의 반대파들을 무장시켜 그들을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내외의 적대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리던 수리아는 로씨야에 군사적지원을 공식요청하였다.

이렇듯 로씨야의 군사적개입은 합법적인것이다.

전투에 진입한 로씨야전투기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리륙하여 《이슬람교국가》기지들의 지휘부와 테로분자양성소, 무기, 탄약 및 물자보관고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들을 집중타격소멸하고있다.

로씨야가 수리아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미국은 그것이 수리아내전을 더 조장시키고 《이슬람교국가》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그러면서 로씨야의 진짜공습대상은 극단적인 《이슬람교국가》가 아니라 저들이 비호하고 후원해주는 수리아정부의 반대파세력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로씨야는 자국의 공중타격은 테로 및 극단조직들과 싸우고있는 수리아군대를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로씨야가 《이슬람교국가》를 소탕하기 위한 반테로전에서 국제련합을 형성하고 서로 협력할데 대하여 미국에 제기하고 테로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넘겨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에 있어서 저들이 전복하려는 수리아정부를 지원하는 로씨야의 태도가 마음에 들리 없었기때문이다.

보는바와 같이 로씨야의 수리아문제개입의 목적은 반테로이지만 미국의 목적은 수리아정부의 전복이다.

로씨야는 미국과 서방의 시비중상에도 관계치 않고 현재 수리아 무장력과 협동하여 테로반란세력들에 대한 타격을 련속적으로 가하고있다.

로씨야는 공습으로 테로반란세력들의 기지들을 타격하는 한편 지난 10월 7일에는 까스삐해에 있는 자국군함들에서 26기의 《깔리브르》 순항미싸일들을 발사하여 테로반란세력들의 기지 11개를 정밀타격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수리아무장력은 로씨야공군과의 협동밑에 테로분자들을 소멸하고 지역들을 해방하기 위한 대규모공격을 개시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미군주도 국제련합군의 1년간의 《공습》에도 끄떡없던 테로분자들이 로씨야와 수리아정부군의 적극적이고 맵짠 타격에 의해 전투력이 약해지고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있는 사실은 미국이 말로는 《반테로전》을 벌린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딴꿈을 꾸며 진짜테로세력들을 음으로양으로 비호두둔해왔다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이에 미국은 바빠났다. 저들의 본심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이 로씨야보다 약하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는것을 차단할 목적밑에 미국은 발악적으로 나왔다. 미국은 결코 저들의 군사적힘이 렬세하지 않다는것을 시위할 기도밑에 지난 10월 련이어 해상요격미싸일발사시험을 강행하였다. 얼마전에는 뛰르끼예의 인씨를리크공군기지에 《F—15C》전투기들을 배비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수리아에서 활동하고있는 로씨야전투기들에 대응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카나다의 인터네트신문 《글로벌 리써치》는 미국이 수리아에서 로씨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서방의 보도수단들은 로씨야의 군사적개입에 의해 수리아 등 중동에서 로미사이의 세력권쟁탈전이 새로운 단계에로 진입했다느니, 로미사이에 새로운 랭전이 시작되였다느니 하며 야단법석대고있다.

이렇듯 수리아정부를 도와 테로반란세력들을 소탕하려는 로씨야의 목적과 《테로분자소탕》의 미명하에 수리아정부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상반되는것으로 하여 로미사이의 대결은 날로 첨예화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로미대결에 이어 수리아를 둘러싸고 치렬하게 벌어지는 두 대국의 군사적움직임들을 주의깊게 지켜보고있다. 그들은 미국이 불집을 일으키고 반로씨야책동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격화되는 로미마찰이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앞으로 로미대립이 어느 지경에까지 치달아오르게 되겠는가에 대해 우려하면서 사람들은 미국이야말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규탄배격하고있다.

김 국 철

ㄱ-51181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